

분류	주일강단 1부
제목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	마11:28-30
일시	2023년 8월 20일
장소	성암교회
강사	정영신 목사 (정리: 박선휘 청년)
주제어	

♣성경말씀 (마11:28-30)

마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11: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 녹취 자료 ♣

서론)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와 짧은 근무시간, 다양한 레저와 스포츠, 각종 문명의 발달로 인해 고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쉼이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 노이로제,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현대인들은 무의미한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항상 긴장된 생활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되는 것이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쉼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쉴 수 있는 여건은 많은데 진정한 쉼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하고 피곤한 세상에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 실제로 나왔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완전한 쉼을 얻기를 바란다. 마11:29 쉬라고 오라고 했는데 왜 멍에를 메라고 하나.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하고 있다. 예수님의 성격과 인격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멍에를 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예수 믿는 다고 하면서 오늘날도 이런 율법의 멍에를 메고 다닌다. 내가 전한 구원은 율법을 다 지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평안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평안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다.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법이다. 여기에 다른 것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다. 옛 계명 아니라 새 계명. 이것이 새로운 멍에인 것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겠냐.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려고 지신 것이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빈부격차, 문벌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주님의 평안을 누릴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와 평안인 것이다.

본론)

1.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니 이 종교, 저 종교 방황하고 교회에 와서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있다.

1)큰 증거 앞에서도 회개치 않는 현장

(1)주님의 전도사역은 언제나 복음전파와 함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2)이러한 증거를 가장 많은 보고도 돌이키지 않은 현장을 책망하시는 주님

(3)결국 복음을 받지 않으면 고라신과 벳새다처럼 화를 입게 됩니다.

2)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2)특히 말세를 향한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인하기 쉽게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말세에 일어난 예언들을 말하고 있다.

(3)그런데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확인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있다. 세상, 육신에 빠져있다. 교회일 하는 것이 노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봉사와 헌신이 잊혀져 가는 시간이 되었다. 세상의 일도 힘든 일들은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3)저들에게는 참된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1)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2)현대 과학, 의학의 발달과 정치인들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2.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1)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1)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저주, 운명대로 살아갑니다.

(2)우상숭배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3)참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 갑니다.

2)유대인은 율법의 멍에를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1)지금도 종교라는 짐을 가득 짊어지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2)우상 숭배와 세상 풍속, 미신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무데나 찾아가고 있다. 무속인에 빠져서 범죄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다.

3)주님의 메시지 -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2)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 19:30)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셨고 구약에 예언하시고 신약에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끝내셨다.

3. 참된 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다. 밖에서 찾으려 안 된다.

1)복음의 시작은 참 평안입니다.

(1)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운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롬8:1-2)

(2)자녀 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요14:16, 26)

(3)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요14:27)

2)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1)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포장, 속이고, 분장할 필요가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

(2)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요2장)

자꾸 내가 주인이 되니까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

(3)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 근거를 붙잡기를 기도한다.

3)성도의 참된 쉼은 무엇입니까?

(1)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냐.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한다.

(2)혼자만의 시간에 약간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집중하면 증거가 찾아옵니다.

(3)성도가 영적 힘을 얻으면 어떤 상황, 현장,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구원받은 자가 있는 모든 현장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현장,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결론)

▶전도서2:23 아무리 성공해도 일평생이 근심하고 수고하는 슬픔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생이 이렇다,

계14:11 영생이 쉼이 없는 삶까지 살면 얼마나 고통이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이다.

출33:14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11:28 방법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시23:1, 시23:2 참 소망과 소망. 응답

▶참된 쉼을 회복하시기 바라며 현장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 평안을 얻는 주일 되기를 축원을 드린다.